

##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성찬 주일:** 다음 주일은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정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 시무장로, 안수집사)
- ② **알림:** 각 공동체장들은 개역개정 성경, 찬송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성도들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③ **신청:** 세례자를 위한 예비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반을 성도들은 신청 바랍니다. (세례식 10월 30일)
- ④ **교제:** 만남의 기쁨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⑤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⑥ **월례회:** 2남, 3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 있습니다.
- ⑦ **세미나:** 이슬람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 이슬람에 관하여 10월3일(월)-4일(화) 오전10시 - 오후5시  
주제: 마지막시대 10월4일(화)-5일(수) 오후7시30분  
강사: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본부장) 장소: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 갈보리 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 NIBC(한동대 선교단체)
- 국내 선교지**
- ▷ City Mission 섬김
  - ▷ 밀알장애우 봉사

## 9월 교회 일지

- 미니 체육대회:  
9월 10일 (토요일)
- 성찬주일:  
9월 25일 (주일)
- 해외 한인 장로회  
뉴질랜드 노회:  
9월 29일 (목요일)

## 교우 소식

**이사:** 김휘열(이숙희) 집사 8A Tawavale Cres. Sunnynook T:440-9515  
**이주:** 김영길 장로(신경화 집사) Landmark 15/43 Blackall St Barton Canberra, AU T:(02)6273 4246

## 9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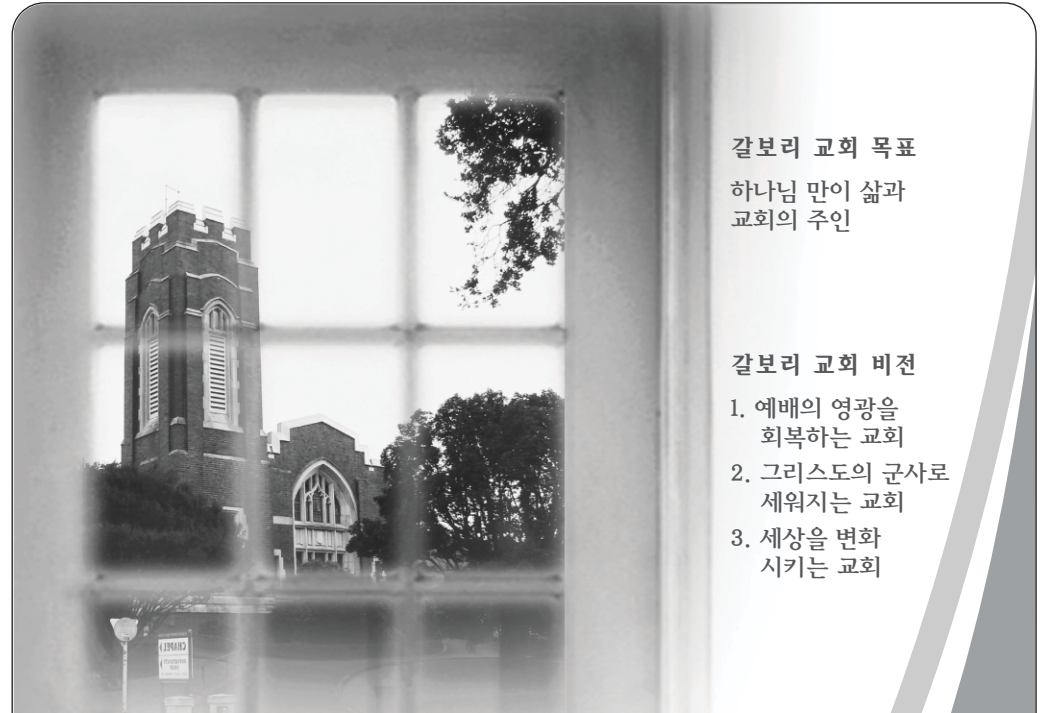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안내	새신자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4일	고성일	심창진	박혜숙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1일	김영길	방명아	박후임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8일	박덕철	원미경	손조훈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25일	이동술	최장한	정옥자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당뇨 수치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섭 형제 당뇨 수치가 정상화되어 3차 항암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2.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극복하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3. 교회 안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향촌 직분자들이 기도에 더욱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하도록.
4. 탈진과 자녀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이 낙심치 않고 끝까지 사역하도록. 바누아투 단기선교가 잘 준비되어 은혜중에 마칠 수 있도록.
5. 한국에 사는 2만여 명의 탈북자(새터민)들이 남북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한국 교회가 앞장서도록.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휴무장로 : 김영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 지휘 : 윤형권  
반주 : 송민영, 유지선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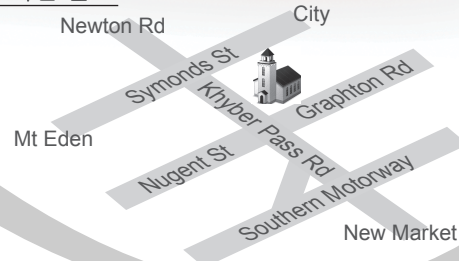
##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 찾아오시는 길



##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1:00PM 본당 유아부 주일 1:00PM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3:00PM 본당 아동부 주일 1:00PM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PM 본당 중고등부 주일 1:00PM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5:50PM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9월 18일

주보 13권 38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35:2-4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15장	다함께
*성서교독	61. 시편 142편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73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덕철집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5:57-58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b>로마에 가도 그리스도인이 되라</b>	김성국목사
찬송	380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김성국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 순서 안내 | 다음 주 기도: 이동술집사 10월 2일: 박병민집사

건축 헌금 | 지난 주 헌금: \$209.00 총계: \$599,505.19

## 주일2부예배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원미경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4:8-15	인도자
설교	<b>헛된 일을 버리라</b>	심창진목사
찬송	두 손 들고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 주 기도: 최장한집사

## 성서교독 61. 시편 142편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  
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  
려고 음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  
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  
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  
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  
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  
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 갈보리 칼럼

### 세상의 해답, 교회

교회의 기능에는 예배와 교육과 선교, 그리고 교제와 섬김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사회적 역할과 예언적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은 교회로 하여금 그 지역 안에서 행해지는 사역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구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여 바른 소리를 낸다든가 교회를 개방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결혼식 혹은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적 역할은 세상과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선포하며,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역할 중 사회적 기능만 강조하면 교회가 자선단체나 사회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락하는 예수님 시대의 회당이 될 것이고 예언적 역할만 강조하면 ‘당신들의 교회’로 간주되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히 사회적 역할만 하는 곳으로만 알아가고 있고 또 그것만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조차도 교회가 사회적 기능에 힘을 쏟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 환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사회적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해가 아니라 너무 이 역할을 하다 보니 교회를 단지 자원봉사나 자선단체로 인식하여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거니와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 예언적 역할을 다해야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과 사람들의 죄를 선포하여 인간들의 현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인이 악인을 정죄하듯이 다그치거나 지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죄 받는 것

- 이태한 목사

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하듯 그 병원이 오직 교회라는 인식을 하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가 될 수 있으며 고침을 받은 후에는 천국이라는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소망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하며 의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의사도 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어도 예언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두 가지 기능 중에서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언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역할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이라고 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예언적 역할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 대상에서 자주 빠지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예언적 역할)을 제쳐놓고 구제(사회적 역할)하는 치중하는 것은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니 구제 사역을 할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립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회 본래의 기능인 예언적 역할로 돌아가기 위한 사도들의 선언입니다.

예언적 역할을 하지 않는 교회는 자선단체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욕을 먹어도 예언적 기능을 기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수요찬양단	다함께
찬양	손조훈집사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사사기 2:11-15	인도자
설교	<b>이스라엘의 실패</b>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423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 애찬 기도: 이기중권사  
다음 주 기도: 정옥자권사